



즉시 배포용: 2020년 10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생명의 나무 시나고그 총격 사건 2주기에 대한 CUOMO 주지사 성명서

"생명의 나무(Tree of Life) 시나고그 예배 중 충격적인 총기 사건일 발생하여 11명의 독실한 유대교 신자가 사망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한 가운데 사건으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이러한 무의미한 폭력 행위는 미국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으며, 생각과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해 뉴욕은 반유대주의 증오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혐오 없는 뉴욕(No Hate in Our State)' 캠페인을 시작하는 한편, 미국 최초의 국내 테러법인 조제프 노이만 혐오 범죄 국내 테러법(Josef Neumann Hates Crimes Domestic Terrorism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소외된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이 나라에서 혐오라는 바이러스가 자라나지 않도록 대담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계속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